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북 고령중 ‘감동이 있는 기업 만들기’ 작은 아이디어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고령중 학생들이 제작한 아기와 노인이 믿고 쓸 수 있는 판매제품 모형. 고령중 제공

경북 고령중의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감동이 있는 기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적정기술(낙후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을 활용해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고, 가상으로 기업을 설립한 뒤 판매물품 모형을 손수 제작하며 창의력을 기르고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했다.

김성숙 경북 고령중 사회 교사는 학생들이 기업이 추구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사회 교과에 만들기 활동을 접목한 이 수업을 기획했다. 김 교사의 수업은 교육부가 주관한 '2018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자유학기활동분과에서 2등급상을 수상했다.

총 17차시의 '감동이 있는 기업 만들기' 수업은 △적정기술 리어카만들기(6차시) △감동이 있는 기업 만들기(11차시)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디어 상품으로 우리 이웃 도와요

1차시는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시간. 학생들은 기업가정신 체크리스트를 살피며 기업가 정신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이후 적정기술의 활용 사례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적정기술의 의미와 적용 방법에 대해 살폈다. 이를 통해 개인·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어진 만들기 활동이 단순히 재미를 위한 활동이 아님을 이해한다.

2차시에 학생들은 폐지 줍는 노인을 다룬 기사를 읽고 적정기술을 활용한 리어카를 디자인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더위와 교통사고 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기사에서 짚어낸 후 모둠별로 리어카에 신호등을 달아 자동차가 노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리어카 손잡이에 의자를 달아 쉬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문제해결역량을 길렀다.

김 교사는 “적정기술 사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관한 것이어서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다소 어려웠는데, 거주지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하니 우리 주변에 관심·나눔이 필요한 대상이 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3차시에는 아이디어 발표회가 진행된다. 모둠별로 자신들이 기획한 리어카 디자인을 발표하는데, 이 때 클래스캠(실물화상기)을 활용하면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 장단점을 분석하기 용이하다. 한 모듬은 리어카에 슈퍼엔진을 달겠다고 했으나 친구들로부터 기술·비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를 통해 새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에는 실현가능성도 고려해야 함을 배웠다.

친구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수정한 후, 4~5차시에는 본격적으로 모형 만들기 활동을 실시한다. 모형을 만들 때 가위, 칼, 글루건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김 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6차시에는 완성된 리어카의 제품설명서를 만드는 시간. 이는 추후 진행될 작품 전시를 위한 사전활동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얼핏 보기에는 엉성할 수 있으나 작품 제작계기와 의도를 정리하면 다른 친구들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쉬우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김 교사는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비해 공작활동이 적고 미술시간에도 정해진 주제·과정에 맞춰 작품을 만들어야 해 많은 학생들이 아쉬워했다”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니 평소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기업 만들기 시뮬레이션으로 진로탐색까지

두 번째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을 가상으로 설립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7차시에는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살폈다. 김 교사는 중 1 학생들이 '가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을 하거나 △직원복지에 힘

쓰거나 △장애인이 만든 쿠키를 판매하는 회사 등 다양한 가치 추구를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제시했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개별 기업 혹은 미래 기업가로서 자신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이어진 8차시에서는 앞서 살핀 기업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업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회사명 △핵심가치 △고객층 △판매할 제품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김 교사는 “서로 다른 배경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이 설립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차시에는 사업설명회와 투자금 모금 활동을 실시했다. 모둠별로 설립하려는 기업의 핵심가치와 판매할 제품에 대해 설명한 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것. 학생들은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기업을 설립한 모둠에 화폐모양 스티커를 막대그래프 모양으로 붙였다. 일종의 간이 평가로, 학생들이 펀딩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등을 알 수 있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데, 기업 구상과정에서 기업 구상과정에서 이를 생각할 수 있어 진로탐색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친구의 칭찬

10~15차시에는 앞서 발표한 사업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판매제품 모형 만들기 활동을 실시한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의사소통·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품을 완성하기 전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짬 제품 시연회를 진행하고, 모둠별로 장·단점 및 개선방법을 포스트잇에 적도록 한 것. 학생들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며 자신이 만든 제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작품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 16~17차시에는 작품전시와 개인·모둠 평가를 실시한다. 개인평가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모둠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봤다. 모둠평가는 친구들의 활동점수를 별 개수로 표시한 후 칭찬 글귀를 적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교사는 “공정함이라는 잣대로 친구를 평가하다보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별 개수로 정량평가를 실시하되 칭찬글귀를 적음으로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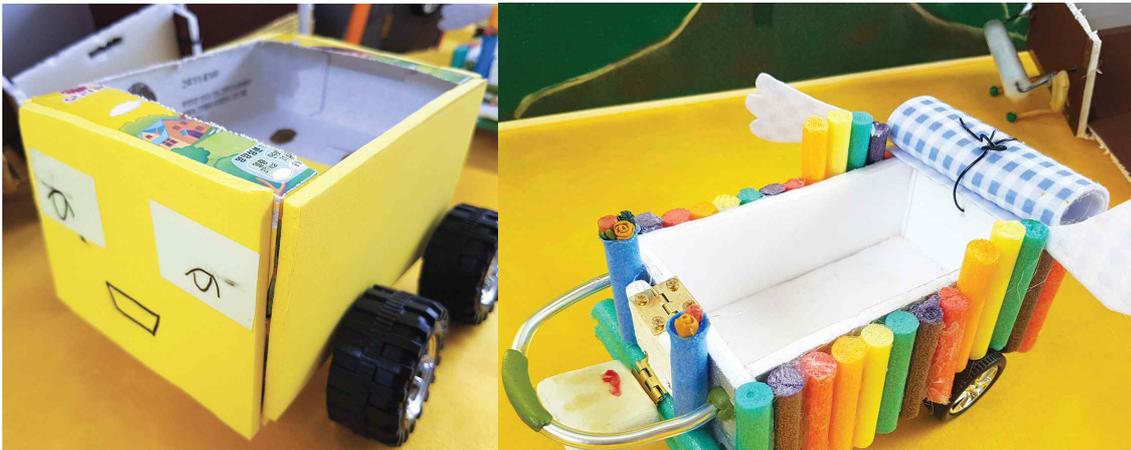
김성숙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만들기 통해 삶의 가치를 찾는 수업

‘감동이 있는 기업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적정기술을 활용해 리어카를 만들고,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 가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판매물품을 만드는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성숙 경북 고령중 사회 교사는 “학생들은 타인을 돕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감동이 있는 기업 만들기’ 수업을 이끈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차 굽힘 방지를 위해 리어카 표면에 스티로폼을 덧댄 작품(위)과 손잡이에 의자를 달아 실 공간을 마련한 작품. 고령중 제공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에서 갓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은 ‘사회’는 흥미와 거리가 먼 교과다. 실제로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체육, 미술, 음악 등 몸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이 사회 교과를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기 활동’을 접목한 이 수업을 기획했다.

다만 이 수업은 일반적인 기업창업 수업과 달리 기업이 정신보다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사회 교과에는 이윤추구, 혁신, 사회기여 등 기업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등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학생은 ‘이윤 추구’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게다가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의 최종가치가 이윤추구에

만 있지 않으며, 경제주체이자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제선택 활동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토의활동이 끝나지 않은 채로 모형 만들기를 해야 한다던가, 모형을 덜 완성했는데 수업이 종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학생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모형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 수업 진행에 다소 애를 먹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재료를 요구하거나, 수업 중간에 문제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등 수업 준비 및 진행 과정이 힘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사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수업 만족도와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Q. 수업의 효과는?

이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리어카를 만들고,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 과정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관심사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활동 자체에 몰입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는 진로탐색에도 효과적이다. 진로탐색의 첫 단계는 자신의 관심사와 성향을 성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은 기업 만들기 시뮬레이션 활동을 수행할 때 자신은 미래에 경호원이 되고 싶다고 경호 관련 물품을 만들기도 했으며, 평소 음식 만들기가 취미였던 학생은 식품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성숙 경북 고령중 국어 교사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가장 중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만들기 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이 활동에 참가하면 모둠의 결과물을 망쳐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좋다. 자유학기제 수업은 일반적인 교과 수업과 달리 성적이 나오지 않으며, 수업 결과물에는 정답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작품 만들기 과정에 실수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료를 지급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져 무임승차를 할 확률이 낮아진다.

학생들이 아이디어 도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폐지 줍는 할머니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라고 요구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당황해했다.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상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다가 수업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

모듬을 돌며 학생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해결 방향과 아이디어를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다. 보통 교사가 개입하지 않고 아이들이 오롯이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사가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교사의 생각이 맘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용하지 않고, 맘에 들면 수용해 발전시키니 만족도도 높다.

제언

이 수업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가 중재자로서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 사는 아이들이 한 조를 이루다보면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기도 한다. 게다가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서투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서로 이해하기 쉽게 재정의해주며 생각차를 좁혀줘야 한다. 갈등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또한 학생이 수행하는 활동이 교사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학생들의 작품이 얼핏 보기에는 조잡할지라도 교사는 학생들의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보고 격려해 줘야 한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은 학생 스스로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학생들은 의미 없는 일에서 배움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